



제 1 부

언론조정현황

제1부 언론조정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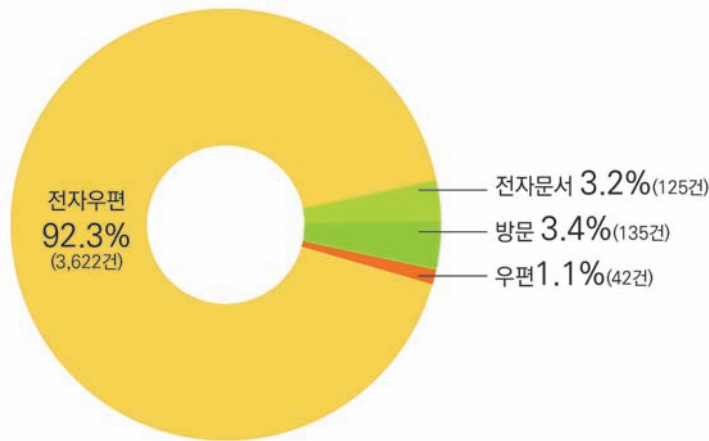
1. 접수 유형별 현황

위원회는 2020년 총 3,924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고, 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. 접수 방법별로 살펴보면, 전자우편(E-mail) 3,622건(92.3%), 위원회 사무실 방문 135건(3.4%), 전자문서¹⁾ 125건(3.2%), 우편 42건(1.1%) 순이었다.

전자우편(E-mail) 및 전자문서를 통한 사건접수 비율은 2018년 91.9%, 2019년 94.8%, 2020년 95.5%를 기록해 비대면 방식 온라인 접수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졌다.

※ 2020년도 중재 신청사건은 접수되지 않음

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



2.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2020년에 가장 빈번하게 접수된 청구는 정정보도청구였다. 정정보도청구는 총 3,924건 중 1,983건으로 전체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(50.5%)을 차지했고, 이어 손해배상청구 1,132건(28.8%), 반론보도청구 695건(17.7%), 추후보도청구 114건(2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청구권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것은 반론보도청구인 것으로 집계됐다(73.8%). 그밖에 추후보도청구 71.2%, 정정보도청구 68.5%, 손해배상청구 62.9%의 순으로 피해구제율을 기록했고, 2020년 사건 전체의 피해구제율은 67.8%이었다.

1) 인터넷에서 전자신청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


표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(2020. 1. 1. ~ 2020. 12. 31.)

청구명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 구제율 (%)
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 불성립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동의	이의				구제	미구제		
정정	1,983	630	95	51	440	(5)	109	8	548	102	68.5
반론	695	212	19	11	115		109	1	201	27	73.8
추후	114	35	4	3	25		2	1	40	4	71.2
손배	1,132	368	48	34	311	(6)	55	24	240	52	62.9
계	3,924	1,245	166	99	891	(11)	275	34	1,029	185	67.8

※ ()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(이의)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

※ 피해구제율 = $\frac{\{\text{조정성립} + \text{직권조정결정(동의)} + \text{취하(구제)} + \text{그 외 피해구제건}\}}{\{\text{전체 조정청구건수} - (\text{기각} + \text{각하})\}} \times 100$

3.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, 개인은 2,187건, 단체는 1,737건을 각 청구했다.

개인 청구사건 중 66.6%의 사건이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심리 전 보도거제, 기사열람·검색 차단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이 가장 많았고(608건, 27.8%), 조정성립 597건(27.3%), 조정불성립결정 507건(23.2%)건 등의 순으로 종결됐다.

단체 청구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청인 유형은 일반기업체 등 회사로, 739건이 집계됐다. 뒤를 이어 일반단체 375건, 지자체·공공단체 292건, 교육기관 125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.

단체별 피해구제율은 지자체·공공단체가 81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이어 국가기관 79.4%, 회사 69.5%, 일반단체 64.6% 등의 순이었으며, 교육기관이 청구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52.4%로 가장 낮았다.

표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(2020. 1. 1. ~ 2020. 12. 31.)

신청인유형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 구제율 (%)	
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 불성립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	
			동의	이의				구제	미구제			
개 인	2,187	597	83	54	507	(6)	215	30	608	93	66.6	
단체	국가기관	108	61	7	7	8		1		17	7	79.4
	지자체·공공단체	292	149	25	12	22			1	62	21	81.1
	일반단체	375	157	18	10	92	(5)	30	3	41	24	64.6
	종교단체	98	26			35		3		28	6	56.8
	회사	739	235	29	14	175		25		232	29	69.5
	교육기관	125	20	4	2	52		1		41	5	52.4
계	3,924	1,245	166	99	891	(11)	275	34	1,029	185	67.8	

신청인 유형 중 단체를 제외하고 개인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기타(시민활동가, 학생, 알 수 없음 등) 유형의 청구건수(638건)가 가장 많았고, 이어 교육자(296건), 전문직종사자(288건), 정치인(281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문직종사자에는 법조인과 의료인, 정치인에는 국회의원, 정당정치인,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. 신청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타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.

표 4 신청인 개인직업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(2020. 1. 1. ~ 2020. 12. 31.)

매체유형	청구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구제율 (%)
		조정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불성립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동의	이의				구제	미구제		
정치인	281	98	6	12	79	(2)	11		68	7	64.4
공무원	191	52	14	4	59		11		42	9	60.0
언론인	98	23	4	4	33		17		12	5	48.1
종교인	47	20		3	19				4	1	51.1
전문직종사자	288	36	3		84		16		148	1	68.8
예술계종사자	12	6			3		1		1	1	63.6
교육자	296	130	37	10	55		5	3	41	15	72.2
개인사업가	208	59	3	13	60	(4)	11		37	25	52.3
회사원	128	48	2	1	30		7	2	25	13	63.0
기 타	638	125	14	7	85		136	25	230	16	77.4
계	2,187	597	83	54	507	(6)	215	30	608	93	66.6

4.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(2,102건, 53.6%). 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596건(15.2%), 신문 506건(12.9%), 방송 465건(11.9%), 뉴스통신 247건(6.3%) 등의 순이었다.

인터넷 기반 매체(인터넷신문, 뉴스통신, 인터넷뉴스서비스, IPTV)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의 비중은 2018년 77.4%, 2019년 74.2%, 2020년 75.1%로, 계속해서 전체 사건의 70%를 웃돌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다.

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은 '기타'로 분류된 매체가 100.0%로 가장 높았으나 표본이 매우 적어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. 그밖에 뉴스통신 75.8%, 인터넷신문 70.7%, 신문 67.7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

표 5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(2020. 1. 1. ~ 2020. 12. 31.)

매체유형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 구제율 (%)
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 불성립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동의	이의				구제	미구제		
신 문	506	220	29	18	130	(4)	12	1	81	15	67.7
방 송	465	158	23	13	138		28	5	79	21	60.2
잡 지	4	2		1	1						50.0
뉴스통신	247	82	10	6	26		24	4	74	21	75.8
인터넷신문	2,102	647	75	45	432	(7)	158	20	631	94	70.7
인터넷뉴스 서비스	596	136	29	16	164		53	2	162	34	60.4
기 타	4							2	2		100.0
계	3,924	1,245	166	99	891	(11)	275	34	1,029	185	67.8

5.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2020년 접수·처리한 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으로, 전체 사건의 96.3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명예훼손 사건 3,778건 중 1,224건(32.4%)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됐고, 1,168건(30.9%)이 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이 중 997건(26.4%)은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어 조정불성립결정 834건(22.1%), 기각 265건(7.0%) 순으로 처리됐다.

한편 침해 유형 중 초상권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(82.1%)을 기록했다.

표 6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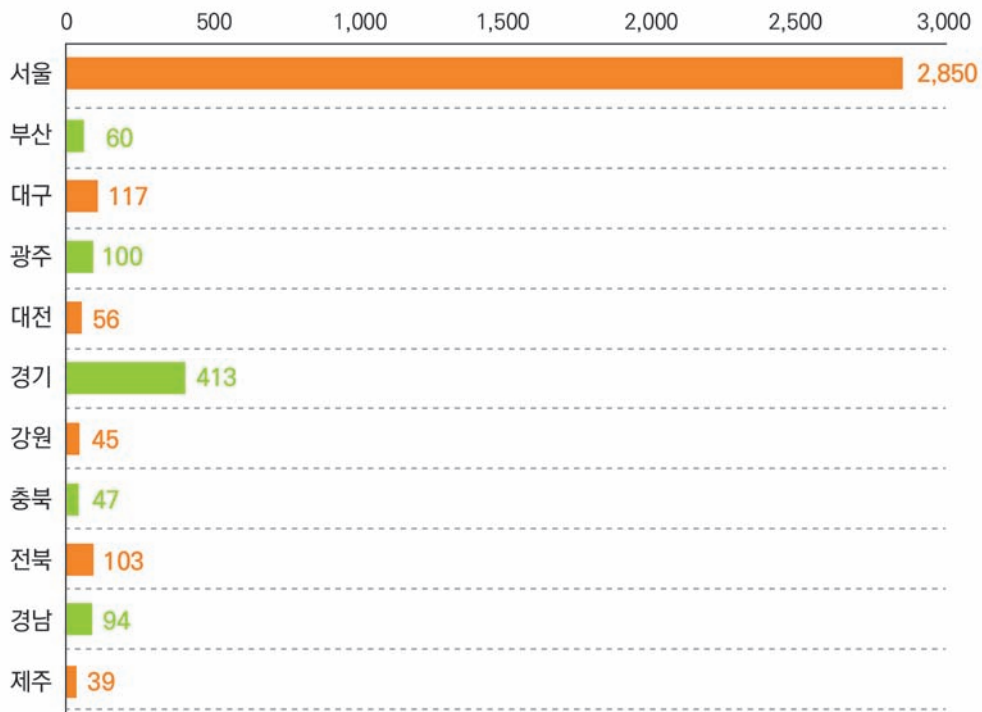
(2020. 1. 1. ~ 2020. 12. 31.)

침해유형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 구제율 (%)
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 불성립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동의	이의				구제	미구제		
명예훼손	3,778	1,224	157	98	834	(11)	265	32	997	171	68.6
초상권 침해	45	11	5	1	6		6		16		82.1
음성권 침해	6		2							4	33.3
성명권 침해	12	2			6			2	2		40.0
사생활 침해	7	2	2		1					2	57.1
재산상 손해	68	3			43		3		13	6	24.6
기 타	8	3			1		1		1	2	57.1
계	3,924	1,245	166	99	891	(11)	275	34	1,029	185	67.8

6.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

2020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, 전체 조정건수 3,924건 중 서울 8개 중재부가 2,850건(72.6%), 지역의 10개 중재부는 1,074건(27.4%)을 접수·처리했다. 지역중재부 가운데 경기중재부가 가장 많은 413건(10.5%)을 처리했고, 이어 대구중재부 117건(3.0%), 전북중재부 103건(2.6%), 광주중재부 100건(2.5%) 순으로 조정사건처리가 이루어졌다.

표 7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





7.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

2020년 손해배상청구 1,132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38건(3.4%)이었다.

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5천 원부터 최고 1,584억 5천만 원까지 분포하고 있다. 청구액의 평균은 약 4억 8천만 원이고, 중앙액은 1,500만 원이다.

조정액은 최저 1만 원, 최고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. 2020년 조정액 평균은 약 400만 원으로 2019년 약 480만 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. 그러나 2019년 조정액 평균에서 합의간주된 조정사건의 최고 조정액(1억원)을 제외한 평균 조정액인 약 255만 원과 비교하면 100만 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.

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26건(68.4%), 초상권 침해 9건(23.7%), 성명권 침해 1건, 사생활 침해 2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.

표 8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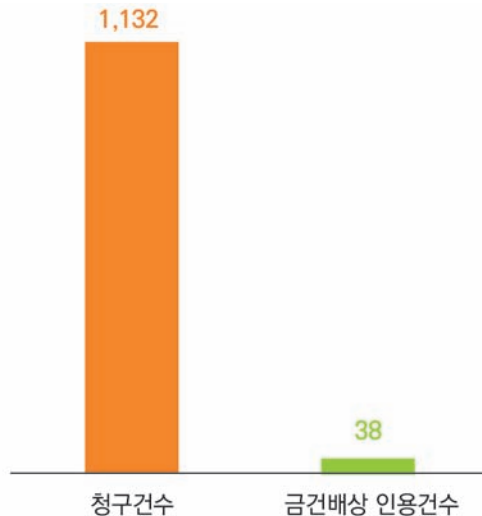


표 9 손해배상청구액 현황

(2020. 1. 1. ~ 2020. 12. 31. / 단위: 원)

최저액	최고액	평균액	중앙액
5,000	158,450,000,000	481,480,644	15,000,000

표 10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

(2020. 1. 1. ~ 2020. 12. 31. / 단위: 원)

최저액	최고액	평균액	중앙액
10,000	20,000,000	4,009,394	1,000,000

표 11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



표 12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

(2020. 1. 1. ~ 2020. 12. 31. / 단위: 원)

침해유형	조정액	빈도	최저액	최고액	평균액	중앙액	최빈액
명예훼손		26	10,000	20,000,000	5,473,182	3,000,000	3,000,000
초상권 침해		9	300,000	2,000,000	887,500	1,000,000	1,000,000
성명권 침해		1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
사생활 침해		2	500,000	4,000,000	2,250,000	2,250,000	